

조선대 2년 7개월만에 정이사 체제 출범

교육부 이사 9명 취임 승인 내일 첫 이사회 이사장 선출 대학혁신·재정확보 과제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2년 7개월간의 학내 혼란을 종식하고 정이사체제로 출범했다. 1일 조선대에 따르면 교육부가 이날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이사 9명의 취임을 승인하면서, 제3기 정이사 체제가 본격 시작됐다. 조선대가 지난 2년 7개월간의 임

시이사 체제에서 주요 현안들을 거의 추진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3기 이사회는 어떤 이사회보다 숨가쁜 임기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사회와 이사장은 학교법인 개혁과 동시에 대학 혁신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게됐다. 특히 이사회는 법인의 재정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개혁을 이뤄야 하고, 학교통폐합과 커리큘럼 재조정 등 학사과정의 전반을 신속히 구조조정해야 할 혁신에 착수해야 한다는 게 대학 안팎의 목소리이다. 제3기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이사는

김부영(목포기독치과의원 원장), 김이수(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백란(호남대 교수), 변원섭(한국농림협회 공공혁신본부장), 신윤숙(전남대 교수), 이문수(전남도민일보사 대표), 임동윤(조선대 명예교수), 정병준(이화여대 교수), 조은정(목포대 교수)이다. (성명 가나다순) 학교법인 조선대 제3기 정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2023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3일 제3기 정이사의 첫 이사회 회의의 개최해 이사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학교법인 조선대는 학원민주화를 통해서 1988년 옛 경영진이 물러나고 임시가

사체제로 운영되다가 2010년 정이사체제로 전환됐다. 하지만 옛 경영진의 측근 인사들이 포함된 제2기 정이사와 구성원간의 갈등으로 2017년 11월 임시이사가 파견됐다. 이후 이번 제3기 정이사 취임으로 2년 7개월 만에 임시이사체제를 종식하고 정상화를 이루게 됐다. 학교법인 조선대 관계자는 "제3기 정이사 선임으로 민립대학으로 설립정신을 구현하고, 향후 정부가 추진 중인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방호복 필요 없는 '워킹스루 부스' 도입

광주 남구보건소

광주 남구보건소가 방호복을 입지 않아도 코로나19 검체 채취가 가능한 '워킹스루 부스'를 도입했다. 1일 남구청에 따르면 워킹스루 부스는 내부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 외부 공기가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부스 안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이 방호복을 입지 않고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 또 채취가 끝난 뒤 외부 장갑만 소독하면 돼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출 수 있다. 그동안 선별 진료소 근무자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자체 무게만 3kg에 가까운 부직포와 필름 소재의 레벨D 보호복을 착용했다. 이 때문에 체온 상승과 호흡 곤란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남구는 양압형 워킹스루 부스가 코로나 장기화로 근무자들의 피로도가 누적



된 데다 무더위로 근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던 근무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상생가치 재정립 포럼 2~3일 전남대 컨벤션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시대 지역 상생가치 재정립을 위한 의미있는 포럼이 광주에서 열린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전환포럼 2020'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 전반에서 대전환을 맞고 있는 시점에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교육, 과학기술과 산업, 기후환경의 새로운 일상 이야기를 통해 지역사회의 상황을 살피고, 상생의 가치를 재정립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전환포럼은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광주교대, 국제기후환경센터 등이 주관하고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공동주관하며, 광주·전남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후원으로 2~3일 이틀간 전남대 컨벤션홀에서 진행된다.



문체부-5·18조사위 업무협약 1일 광주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송선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유예하라"

전교조 광주지부 성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사 간 갈등과 불신을 부추기고 '코로나19' 방역에 부담을 준다며 교원 평가 시행을 전면 유예할 것을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1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의 무리한 시행은 수업과 방역 관련 학생 안전 지도에 전념

하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코로나19로 교사들은 학교 방역의 최일선에 서 있는 상황에서 '교육활동 소개' 자료 만들어 올리기, 교원 평가 시 자기평가서 작성하기, 공개 수업 준비, 동료교원 평가체크리스트 작성 등 교원평가에 따른 여러 업무까지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대병원 자체 개발 심혈관계 스텐트 임상시험 승인

외국산 단점 보완 신기술 적용 미국 특허 등록...상용화 임박

전남대병원 의료진이 자체 개발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약물용출 심혈관계 스텐트가 임상시험 허가를 받아 상용화에 한발짝 다가갔다. 식품·약품안전처는 지난 29일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와 한국 심혈관계 스텐트 연구소(조경훈·박대성·김문기·현대용·김민철·홍영준·김주한·안영근·정명호 교수)가 개발하고, 의료용품 제조·판매업체인 ㈜시지 바이오가 제조한 상품명 '타이거 레볼루션(Tiger Revolution)' 스텐트에 대해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 스텐트의 품질 및 성능의 우수성을 국내외서 인정받아 향후 국내 상용화에 청신호가 켜질 것

로 기대된다. 이번에 승인된 스텐트는 지난 2015년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현재 임상에서 사용 중인 금속스텐트 '전남대병원스텐트(CNUH스텐트·일명 Tiger Stent)'에 약물용출을 접합한 것이다. 특히 기존 약물 용출 스텐트의 약점으로 꼽히는 후기 혈전증의 주요 원인인 중합체(polymer-약물)를 금속에 입히기 위해 쓰이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중합체보다 훨씬 얇은 이산화 티탄(TiO2) 박막 필름을 이용해 약물(Everolimus)을 금속에 입히는 신기술을 적용한 세계 최초의 스텐트이다. 성능에 있어서는 현재 심장병 환자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외국산 약물용출 심혈관계 스텐트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동물실험결과를 통해 입증됐으며, 이는 국제심장학회지에 보고됐다. 아울러 지난 2016년 국내 특허등록을

획득한데 이어, 2017년과 2019년에 미국 특허 등록을 받을 정도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개발팀은 스텐트 개발 기술을 2019년 시지 바이오에 이전했으며, 경상수지의 2%를 기술이전료로 계약함으로써 전남대병원 자체 수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텐트 개발을 주도해 온 정명호 교수는 현재까지 심혈관계 질환분야 및 스텐트 관련 연구분야에서 논문 1518편, 특허 72건, 저서 80편, 기술이전 6건 등으로 국내 최고의 연구실적을 거두고 있다.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정명호 교수는 "심혈관계 스텐트는 개당 200만원 정도여서 이번 스텐트가 상용화되면 국내 심장병 환자들의 의료비 경감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

전남대 연구팀, 어깨힘줄 치료 나노소재부품 개발

전남대 연구팀이 만성 퇴행성 어깨힘줄 파열을 치료할 수 있는 나노소재부품을 개발했다. 바이오시스템공학과 김장호 교수와 의대 정형외과과학교실 김명선 교수 연구팀은 인구의 50% 이상이 겪을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이면서도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원천적인 치료법이 없는 '만성 퇴행성 어깨 힘줄 파열'을 치료할 수 있는 나노소재부품 개발에 성공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화학회 학술지 ACS Omega 최신호에 게재됐고, 미국 화학회가 6월의 한국 주요 논문으로 선정했다. 전남대 연구팀은 힘줄 조직이 정교한 나노 패턴 구조로 구성된 것에 착안해 힘줄 나노 패턴 지지체를 개발하고, 토끼 동물모델에 실험한 결과 손상된 어깨 힘줄을 효과적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채희중 기자 chae@

완도교육청·나주공공도서관 급식업체 관리 등 소홀

완도교육지원청과 나주공공도서관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와 프로그램 수강생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종합감사한 결과, 완도교육지원청은 학교급식 점검단을 구성해 식재료 공급업체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나주공공도서관은 2018년 봄·가을학기 평생학습 강좌에서 수강자 8명이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수강자로 인정했다. 반면 수강자 17명은 수업일수를 채웠는데도 미 수료자로 기록하는 등 프로그램 수강생 관리를 소홀히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 062-412-2800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광주에서 30~40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수목장 묘지이장 문의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